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

윤방섭 신임 전주상의 회장 당선... “4차산업시대 능동 대처 소통의 장 마련”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6일 전주상의 회장 7층 대회의실에서 9일 의원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제24대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했다.

이날 선거에서 윤방섭 (주)삼화건설사 대표이사(사진)가 전주상공회의소의 제24대 회장으로 선출돼 앞으로 3년 동안 전북경제를 견인할 수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윤 신임회장은 당선인사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회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3년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차 산업시대를 맞아 다양한 업종간에 소



통과 융합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우리 지역의 제조·유통·건

설·서비스 산업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며, 철저한 조직 개혁을 통해 전주상공회의소의 100년 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상의 24대 회장으로 선출된 윤방섭 회장은 정읍 출신으로 (유)삼화건설사 대표이사, 건설공제조합 대의원, 대한건설협회 이사, 건설경제신문 이사,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27대 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임시의원총회에서는 윤방섭 신임회장과 함께 전주상공회의소를 이끌어갈 11명의 부회장과 25명의 상임의원, 2명의 감사, 명예회장, 고문도 선출됐다.

/김윤상 기자

국내외 인기 蘭 ‘팔레놉시스’ 소비 흐름 반영

농진청, 러블리엔젤·아리아 등 내수·미국 수출용 개발 품종 선보여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난(蘭), 팔레놉시스 소비 흐름을 반영해 내수용과 미국 수출용으로 개발한 다양한 크기의 품종을 17일, 전문평가단에게 선보였다.

국내용 팔레놉시스는 40cm 내외의 소형 크기 난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작지만 꽃이 많이 달리는 품종 위주로 개발하고 있다. 반면, 수출용은 주요 수출국인 미국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흰색, 분홍색 계열에 꽃이 크고 꽃 배열이 안정적인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농진청은 그간 개발한 소형 팔레놉시스 ‘러블리엔젤’, ‘아리아’와 수출용으로 새로 개발한 ‘원고 F2-48’ 계통을 소개했다.

‘러블리엔젤’은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형태를 지니 입술꽃잎(순판)이 일반 꽃잎처럼 큰(Big-lip) 점이 특징이다.

꽃대 발생률이 좋고 장거리 수송 하기도 수월해 국내 소비뿐 아니라



소형 팔레놉시스 ‘러블리엔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미국 수출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리아’는 흰색 바탕에 중앙 부분이 선명한 분홍빛을 띠는 소형 품

종이다. 잎 길이가 짧아 재배와 관리가 쉬우며, 꽃대가 잘 올라오고 꽃수가 많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새로 개발한 ‘원고 F2-48’은 화사한 분홍색을 띠며, 꽃 한 송이 크기가 9~10cm에 이르는 대형 종이다. 하나의 꽃대에 꽃이 8~9송이 정도 달리며, 꽃 배열도 우수해 미국 수출이 기대되는 계통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미국과의 수출 검역 협상 타결로 팔레놉시스를 화분에 심은 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이어 2019년 첫 수출을 시작해 지난해에는 화분에 심은 묘 5만3000본을 미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원희 화훼과장은 “국내 시장 수요에 일맞은 품종개발에 이어 해외시장에서 인정받는 우수 품종을 개발함으로써 국산 난 품종 보급률을 지난해 20.2%에서 올해 2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새해맞이 경품이벤트 시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전주시 지역화폐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 사용 고객을 위해 진행한 ‘새해맞이 경품이벤트’의 1주차 당첨자를 17일 발표했다.

전주사랑상품권 ‘새해맞이 경품이벤트’ 1주차 당첨자 발표

전북은행, LG스타일러 3명·돼지카드 충전 인센티브 4만점 100명에게 매주 지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전주시 지역화폐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 사용 고객을 위해 진행한 ‘새해맞이 경품이벤트’의 1주차 당첨자를 17일 발표했다.

LG스타일러 당첨의 주인공은 총 3명이며, 추가로 전주사랑상품권 충전 인센티브 4만점에 당첨된 100명의 고객들은 15일 인센티브 충전이 완료된 상태다.

당첨자중 한 명이 이 모씨는 “평소 전주사랑상품권의 혜택이 좋아서 자주 쓰게 되는데 이런 행운까지 찾아와서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 ‘새해맞이 경품이벤트’는 전주사랑상품권 체크카드를 이벤트 기간 내 건당 10만원 이상 사용 시(선결제 포함) LG스타일러(총 30명), 카드 충전 인센티브 4만점(총 1,000명)을 매주 수요일 추첨

해 지급한다. 이벤트는 자동으로 응모되며, 건별 10만 원 이상 이용할 때마다 추첨권 1회가 부여된다. 이벤트 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다.

이벤트 참여 및 상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영업점, 고객센터(☎1588-4477), 홈페이지(www.jbbank.co.kr), 뉴스마트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병해충 관리·검역 전문 인력 양성 나서

농식품부, 올해부터 3년간 전북대·전남대 등에 특수대학원 설립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 이하 ‘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오병석 원장, 이하 ‘농기평’)은 2021년부터 3년간 60억 원을 지원해 농작물 병해충 관리 및 검역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전북대학교와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3개 대학 컨소시엄이 올해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사업 신규사업 연구개발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지난 1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학에서는 해당 분야의 특수대학원을 설립해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석사 과정 교육을 담당하고, 농식품부

는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교육인프라 확충,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스마트농업과 동물감염병 2개 분야에 충남대학교(경북대, 경상대)와 충북대학교(전북대, 건국대)를 각각 선정했으며 2023년까지 분야별 8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작물 병해충 관리 및 검역분야 특수대학원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작물 병해충 발생 증가 및 외래 병해충 유입에 따른 검역 분야 전문가 양성 필요에 신규 추진하게 됐다.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전북대학교 컨소시엄은 농촌진흥청,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협력해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현장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중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작년 과수화상병, 매미나방, 붉은 개미 등 농작물 병해충과 외래유입 해충들이 농업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다”며 “앞으로 농작물 병해충 문제 등 농식품 산업을 둘러싼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거래소 종합검사, 코로나 이연된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년 만에 추진되고 있는 한국거래소 종합검사와 관련해 “거래소 검사는 작년에 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이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소 종합검사는 2010년 이후에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거래소는 2015년부터 공공기관에서 해체돼 국정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는데, 국회 감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감독원 검사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산은은 금융위, 감사원, 국회에서 (감사를) 한다”며 “거래소의 경우에는 금융원과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올해 초에 검사를 나가는 것으로 됐다.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집콕쇼핑’ 을 잡아라

도·경진원, 도내 중기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 연간 10개사에 1회 방송비용 최대 1600만원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홈쇼핑 방송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역대 최대치인 161조 원을 기록했다. 언택트 소비문화가 일상이 된 지금, 온라인을 통한 판매채널 확대는 필수적 요소가 되어 이른바 ‘집콕쇼핑’ 시대가 열렸다.

전북도와 경진원은 이러한 시대 흐름을 반영해 우수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제품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한 홈쇼핑 방송을 지원한다. 경진원은 지난해 16개사의 홈쇼핑 방송을 지원해 11억1,000만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했다. 그 중에서도 완주봉상생강조합의 편강세트와 하봉마을의 눈꽃강스낵 제품은 1회 40만 방송만에 완판을 기록하며 각각 1억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했다. 전례 없던 코로나 사태로 사업환경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는 홈쇼핑 지원금을 10%가량 증액해 지역기업의 온라인 판로 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전북 소재 우수중소기업(제조업)이며 연간 10개사에 1회 방송비용 최대 16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절차는 1차 서류평가, 2차 MD상담회, 3차 현장QA를 통해 상품구성·가격경쟁력·차별성·신뢰성 등을 심사해 최종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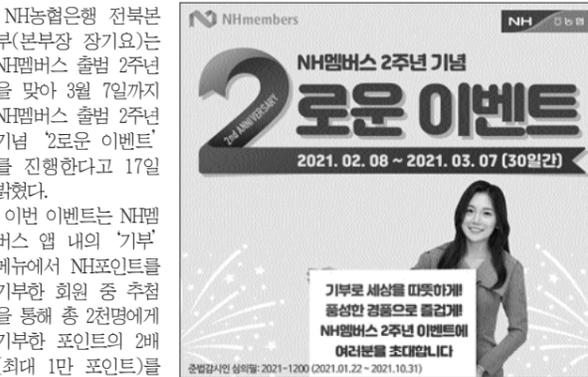
이번 홈쇼핑 지원사업은 홈앤쇼핑·공영홈쇼핑·NS쇼핑·SK스토어와 함께 진행하며, 방송사별 지원금액과 판매수요는 경진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이며, 사업공고는 경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NH멤버스’ 출범 2주년 기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2로운 이벤트’ 실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NH멤버스 출범 2주년을 맞아 3월 7일까지 NH멤버스 출범 2주년 기념 ‘2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NH멤버스 앱 내의 ‘기부’ 메뉴에서 NH포인트를 기부한 회원 중 추첨을 통해 총 2천명에게 기부한 포인트의 2배(최대 1만 포인트)를 돌려준다.

“기부”는 농협은행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만든 컨텐츠로, 적립된 포인트는 5개의 자선단체(농촌사랑별 국민운동본부, 우리동업지기운동본부, 세이브더칠드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에 전달된다. 장기요 본부장은 “NH멤버스 앱 ‘기부’를 통해 고객들에게서 적립한 NH포인트로 손쉽게 기부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참하신 고객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이벤트를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ESG 경영에 충실한 농협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이벤트와 함께 NH멤버스 상품물 런칭 기념 ‘비선 스탬프’와 NH멤버스 출범 2주년 기념 ‘짠크 멤버 인종’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NH멤버스 앱 또는 콜센터(☎1644-72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2기 전북권역 희귀질환거점센터 지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2기 전북권역 희귀질환거점센터로 지정돼 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진단 및 치료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전국 11개 권역의 2기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지정했으며, 전북권역에서는 전북대병원을 지정했다.

앞서 전북대병원은 1기 전북권역 희귀질환거점센터로 지정돼 2019년부터 2월부터 2년간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2기 거점센터 지정으로 2023년까지 희귀질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2기 사업에서는 지난 1기 때 진행된 사업을 바탕으로 권역내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을 확대 발굴하고, 희귀질환자들이 지역내에서 전문적인 질환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역량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진단검사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산부인과 등 병원 내 여러 진료과의 협진시스템을 통해 희귀질환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 전문상담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건협 전북지부-전북여성장애인연대, 건강증진 협약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본부장 배기웅)는 17일 전북여성장애인연대(대표 유시선)와 건강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건강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동안 전북여성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해 온 전주시의회 채영범 의원의 추천으로 진행됐다.

전북여성장애인연대는 장애로 인한 차별과 폭력, 빈곤 등 다중의 중첩된 차별 속에서 소외되어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권과 사회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로, 지역의 여성장애인들이 연대해 상호 유대강화 및 교류협력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권익보장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복지 증진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협 전북지부는 전북여성장애인 회원들과 사무처 직원, 가족들의 건강검진 시 우대 및 치료 연계와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지원, 사회공헌 건강검진 지원,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전북여성장애인연대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건협 전북지부의 건강검진 내용을 홍보하는 등 건강검진사업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김윤상 기자